



2003년
11월 15일
제 63호

춘천성신신문

나침반

교회생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회운동
새로운 도시·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임신영

Fax. 033) 257-1260

Tel. 033) 256-1260

춘천시 효자1동 373-90 (☎200-091)

제1회 춘천선교대회 세계를 마음에 품었다!

- 일반신자 4일 · 목회자와 교계지도자 3일 · 대학생세미나 3일 -
- 성시화의 새 비전을 발견한 1,500명의 성도들 "나는 선교사다" -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임신영 목사)가 주최하고 CCF 춘천교회포럼이 주관하는 제1회 춘천선교대회가 춘천동부장로교회에서 11월 2일(주일) 저녁부터 5일(수)까지 개최되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으며 참여한 모든 교인들은 은혜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해외에서 사역중인 국내 선교단체가 참가하여 현지상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고 현장감있는 선교대회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매일 오전 2시간 성경사례적인 메시지가 전해졌으며 오후 5시 춘천의 3개 대학선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열어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었다. 저녁시간에는 초교과 모든 교회 신자들을 위해 세미나를 갖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동희 목사(전주안대교회)는 교회의 예산 70%를 선교사역에 사용하는 240개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일명 "강종교회"로 잘 알려진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를 소개하면서 선교의 비전과 비전을 펼쳐놓아 모두에게 감명을 주었다. 이 메시지는 첫 시간부터 끝날때까지 선교사역에 대하여 역설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

능을 받고 예수상행과 유대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 선교전도는 네 곳을 통시하는 것임을 강조했으며 전 영역에 걸쳐서 선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즉 자기지역 국내선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의 사마리아, 가나안과 불우한 자에게 선교하고 땅끝까지 선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으므로 선교전도는 예수님과 구원얻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선교사역에는 8가지가 있으며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암기하였는데 첫째, 해외선교를 들었다. 이는 타문화권 전도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둘째는 부모 선교사역으로서 자녀들을 주님께 바치는 사역이다. 셋째는 직장선교 사역이라고 했다. 선교사로서 직장의 상사, 부하를 대하는 것이다. 직장선교회가 헌금을 모아 직장의 필요에 지원한다면 직장내의 믿음은 변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직장선교회라고 부르지 말고 직장선교회라고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넷째 문화선교사역을 말했다. 이는 전 세계 선교

사역이며 음악선교사역, 인터넷 등 각종 분야를 통한 사역이다. 다섯째는 자족선교사로서 그 예로 전주안대교회에는 발리인 선교회가 있어 주위노인에게 인기라는 것이다. 여섯째, 기도선교사역이다. '오직선교'를 위해 기도로서 지원하는 일이다. 일곱째, 물질선교사역이다.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사용 용건만이 나에게 있다. 이는 보내는 선교사역으로서 중요하다. 여덟째, 길거리선교를 말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다. 마지막 집회에서 전 성도들은 "나는 선교사이다" 5회 부름을 통해 선교사임을 자각하고 다짐하였다. 이번 제1회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마음에 품게 되었으며 성시화 운동의 제2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상행을 위한 소극적인 선교에서 세계미전도종족을 향한 적극적인 전도를 이룬 기쁨에 터득하게 되었다. 나는 선교사라고 다짐했듯이 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관계자들은 춘천선교대회는 성공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기독교연합회 하부조직으로 선교단체연합회를 만들고 사무실과 전문간사 목사를 두어 선교에 관한 연구와 전략을 개발, 지속적인 추진을 하려고 한다.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참여한 성도들은 헌금으로 정성을 모았다.



▲저녁집회 주임사 이동희 목사(전주안대교회)의 일명, 강종교회) 11월 2일: 누기복을 19:10-10 사제오의 변화처럼 / 11월 3일: 사도행전 16:6-10 주님의 환상에 따라서 / 11월 4일: 사도행전 1:6-13 선교를 통한 새로운 교회 / 11월 5일: 마태복음 28:18-20 선교사가 되는 8가지 ▲선교세미나 강사: 조경호 목사(수원형제교회), 도문갑 박사(CMP대표, 합동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한철호 선교사(신교한국 상담간사)



칼빈의 종교개혁과 춘천 성시화 세미나 성료

- 제네바 성시화연구 권위자 리처드 갬블 박사 발제 -
- CCF 박인관 목사, 성시본부 김용일 장로 발표 토론 -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광명교회(박인관 담임목사)에서 춘천성시화에 열정을 품은 목회자들과 장로, 성도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이영길 선교사(인도비하루주)의 사회로 칼빈의 종교개혁, 성시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 리처드 갬블 박사의 강의를 시작되었고 김재성 교수(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가 문역을 담당했다. 갬블 박사의 발제를 통해 도시 성시화의 길을 알게 되었으며 도시인의 삶이 복음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16세기 칼빈 당시, 신문이나 TV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스위스 제네바는 엄청난 갈등과 고통속에 세속화된 상태였다. 칼빈은 24시간 내 이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노예를 짐을 싣고 가다 라인강에 이르렀는데 노예가 넘어지는 바람에 짐이 강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그때 시의회의장(스트라두를)이 뒤쫓아와 돌아와 줄 것을 원하자 칼빈은 약마의 입속에 던져지는 것이므로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선배목사 파렐의 설득으로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후

로 제네바시민은 여전히 칼빈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며 모든 일이 산만해져 있었다. 그러나 앞에 성경을 내놓을 것을 각오한 칼빈은 파렐 목사와 함께 매주 두 차례 시장터에 모인 농부와 상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시작했고 칼빈과 파렐목사의 설교를 듣고 제네바의 시민들 사이에 회개가 일어났고 귀족과 하층민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들의 심령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여러번, 칼빈과 같은 각오가 있기를 바랐다. 리얼리즘은 파멸을 지어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를 바치겠다는 각오없이 성시화는 어렵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같은 파멸적 각오가 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된 제네바에서는 직업기술교육으로 여자들의 문명생활이 시작되었고 95%에 육박한 문명자를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남녀 차별없이 동등하게 교육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위상승화와 세속화적 사고가 은밀한 곳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크리스찬들은 칼빈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 왕이시니라, 도시는 변화되어간다.



예수제자운동 "디모데후서 사경회"

JDM 예수제자운동(대표 윤태복 목사)은 11월 17일(월) ~ 20일(목) 저녁 7시 30분 동안 만민리에 위치한 국제선교훈련원에서 디모데후서 사경회를 가졌다. 예수제자운동 총재인 윤태복 목사가 직접 강의를 이번 사경회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참석하기를 바란다. 예수제자운동은 "만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는 비전을 가진

교육과 기독교문화 배양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로서 1977년 한국에서 최초 사역을 시작한 이래, 현재 18개국에 42개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국내 12개 지역과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65개 대학에서 60여명의 전일사역자가 사역하고 있다.

※문의: 예수제자운동 사무국 ☎243-6701~4

춘천기독교연합회 오승룡 목사



오승룡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11시 목회자와 평신도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 기독교연합회장은 현재 부회장이며 교역자연합회장으로 있는 오승룡 목사(춘천성결교회)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오목사는 제2회 연합회장 윤철종 목사 당시 총무직을 역임한 바 있어 연합회의 필요와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자기가 인정하는 리더십을 지니고서 연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평소 장직하고 정경이 있는 성품으로 회원들로부터 존경

받고 있으며 특히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생산성 있는 성시화 운동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춘천의 교회가 나아갈 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오목사는 목회자 그들은 물론이며 평신도 사역에도 강력히 지도력으로 춘천 기독교를 반석위에 올려놓고 현재 유망무실한 상태의 선교단체들을 연합체로 만들어 하나의 유기체로 살아있는 선교단체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춘천지역의 개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도록 이끌어 나가며 특히 해외 선교단체들을 다함양하여 땅 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연합회장과 임원진을 위한 격려와 지도가 필요한 때이다.

장로교 연합 춘천지회 부흥성회 성령 충만



사경정 목사

한정원 춘천지회장 사경정 목사는 지난 10월 26~28일까지 장로교연합 부흥성회를 춘천제일장로교회(박성호 담임목사)에서 1백여 장로교 성도들과 함께 하였다.

3일간 부흥성회에는 국내 유명 강사진이 레준하여 열린 강의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정을 다해 주었다. 첫날과 둘째날은 이한수 목사(I.L.I.M 국제선교언어훈련원 원장)가 청소년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으며 셋째날은 임택근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총장)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이번 장로교 연합 부흥성회는 국내의 유명강사들을 초청하여 근래에 보기 드문 부흥회로써 성황을 이뤘다. 부흥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연합회장 사경정 목사(중앙장로교회)와 총무 지용환 목사(온택장로교회), 서기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 등 임원들이 전심전력을 기울였으며 부흥성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장로의 이름을 빛나게 하였다.



신종철 장로
소양성결교회
춘천CBS소년소녀합창단장

뉴질랜드 찬양예술제 Praise in New Zealand



Director 조숙희



Production 신국

춘천 CBS소년소녀합창단 대양주 순회공연

춘천 CBS소년소녀합창단(단장 신종철 장로)은 오는 11월 25일부터 대양주 해외 순회공연을 8일동안 갖게 된다. 호주 시드니 가스펠센터, 뉴질랜드 오클랜드순복음교회, 그리고 오클랜드 성시화를 위한 뉴질랜드 찬양예술제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할 계획이다. 매년 개최되는 해외공연 중 금번 대양주 공연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소회되고 사막한 이민사회의 교회들과 함께 하나됨을 찬양함으로써 신앙을 회복하고 서로간의 존중과 정과 사랑을 넘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맑고 순수한 찬양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 사회에 CBS의 방송선교 활동이 더욱 확대되리라 기대하며 CBS소년소녀합창단과 현지 총동맹인 왕가파와오(Whangaparaoa primary school)학교와의 자매결연 행사로 1일 현지수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일시: 2003년 11월 29일 저녁 7시

장소: Victory Christian Church

(98 Beaumont St. Freemans Bay, Auckland, New Zealand)

주최: KOREA연예인선교단

주관: 재뉴한국기독실업인회

후원: 오클랜드 한인교회협의회, 재뉴한인회, 재뉴무역협회, 재뉴한인상공인연합회, 오클랜드 한국기업교양방송, 가톨릭방송, 한국신문, Goodday, Korea Times, Insider, NZ Times, 트림라인, (재)CBS기독교방송, (재)세계복음화협의회, 한국유리공업협회, (주)유성건설, ASAHI(Orewa), 이태라 찬양물동선교단, 이호영 선교무용단, 갈릴리 국악선교단, SKPAG합창단, LOGOS Singing Mission, Worship Drama, Gospel Singer, CBS소년소녀합창단, NZ Royal Navy Band(Ann Marsh), NZ구세군악대

오클랜드의 성시화를 위한 홀리찬양예술제

춘천 성시화를 꿈꾸는 기독교 용사로서 멀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자리 유익히 머물고 있는 조숙희 집사(소양성결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오클랜드 성시화를 위한 홀리찬양예술제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하버뷰를 바라보며 오클랜드시티의 한 중심부, 3천석 규모의 빅토리아 크리스찬센터에서 오는 11월 29일 19시 한국의 많은 연예인과 국악, 찬양, 율동, 복음가수, 합창단 등이 어우러져 하나님께서 열정을 드리게 된다. 금번 행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기록하고 영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특별히 소외받고 사막한 이민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준비해 왔으며 모이지 않던 오클랜드의 55개 교회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연합하고 교인사회는 물론 뉴질랜드 현지인들도 대거 참여하여 영성실무한 큰 축제의 날이 되리라 기대한다. 조숙희 집사는 춘천성시화기도운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신종철 장로의 후원으로



1998년 춘천성시화회를 위한 기독교 찬양 예술제 베행복회에서 개최된 바

사설

편협한 국익주의에 앞선 크리스찬의 자세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각 정당과 계파, 국민의 정치성향에 따라 국론이 크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친미적인 입장인 이 있는가 하면 친이라크적인 입장이기도 있다. 이에 크리스찬들도 제마다의 견해가 다르며,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대표적인 기독교 연합기관에서조차도 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 입장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다른 이들의 이해를 받고자 한다. 국가간의 국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한 후 이미 오래 전에 우리 나라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우리는 가능한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라크와 동맹관계를 맺는게 이슬람국가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원만한 석유수급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주미미군은 미군들을 한강 이남으로 철수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미국의 젊은이들을 출동시킨 것으로 대미지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본토의 국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가 위기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한반도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정서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어떻게 하든 미군들을 붙잡아 두려고 한다. 좋은 노력이라고 말하지만 미군들을 붙잡아 두면 우리의 안전

11월부터 활동할 새로운 필진을 소개합니다

- (사설) 최상도 목사
사람성경교회 시무, 서울신학대학, 예수학문연구회, 본지편집위원
- (성경적세계관) 최영준 목사
갈릴리교회 시무, MP 코디네이터, 본지편집위원
- (해과신앙의민남) 변석규 목사
신림중앙교회 시무, 미국 유니온신대원(미리치먼드), 본지편집위원
- (기독교전래사) 김기태 장로
춘천중앙교회, 기독교타임즈 동부연회 지사장, 본지운영위원
- (평신도신앙) 장준호 장로
서부감리교회, 협성신학대학 출, 본지운영위원
- (신앙생활) 이영구 장로
석사감리교회, 동부연회평신도연합 총무, 전 직장신교연합회장, 본지운영위원
- (나과신앙) 박동현 권사
한길감리교회, 강원도연합회장, 본지운영위원
- (신학박람회) 김명영 안수집사
동신장로교회, 전 강원도신학평판, 전 춘천직장신교연합회장, 본지운영위원

책과 신앙의 만남

「추수감사절의 두 신사」
O.헨리의 단편선 중에서

결의 계절에 감사해야 할 열매가 없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욱 슬픈 일은 나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것이 아닐까?

저자 헨리는 추수감사절을 배경으로 하여 두 신사를 등장시키는데 한 신사는 스티피 피트라는 가난한 노인이었다. 스티피는 추수감사절 오후 1시간 되던 공인 신제일에 있는 벤치에 슬픈 마음으로 앉아 있게 되는데, 무려 9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 왔다. 그가 그런 습관에 젖은 이유는 이렇듯 노신사가 매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살아 계시니 반갑구려.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해사라도... 자 잡시다... 식사를 대접해 드리리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두 노인은 그렇게 만나 한끼의 식사를 한 후 헤어진다. 10년째의 추수감사절에도 스티피는 일찍집 공인 벤치를 향하였고, 도중에 못지 않은 전수생산을 부지런히 할머니로부터 대접을 받는다. 할머니는 추수감사절 전날 자기 집 대문을 치음으로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접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스티피는 할머니 덕분에 음식이 "목구멍까지 가득" 찼고 "정신도 혼미했습니다." 그 날도 스티피는 평화한 시간에 노신사를 스티피만 배부르다 하여 노신사의 호의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호의를 배우는 자의 기쁨을 스티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날도 노신사는 스티피와 식사만 주문하고 먹는 모습만 볼거리며 쳐다보았다. 기쁨도 잠시 불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재워졌으니,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기다리지 못

사라질 위기에 놓인 기독교카페

청년 복음화의 산실인 공간을
영소로 보존해야

“홀리갤러리”

춘천에 위치한 “홀리갤러리”는 박성모 집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카페이다. 홀리갤러리는 크리스찬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음악교류를 통해 신교하는 공간으로, 젊은 목회자와 신도들이 아늑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또한 무심코 차한 잔 마시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어떠한 거부감도 느끼지 않고 기독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가족들 메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가치를 지닌 카페라고 자랑할만하다. 그러나 이때까지 오직 믿음과 같은 신념만으로 홀로 갇혀서 모진 시련들을 견뎌낸 젊은 일꾼 박성모 사장에게도 연이은 위기가 찾아왔고, 춘천의 수백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한 때이다. 대체로 카페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기독교인들이 찾아주지 않았고, 대성자가 젊은층으로만 국한되다보니 어린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모든 차와 음료가 3천5백원선을 넘지 않도록 어느 카페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은 아예 판매하지도 않았다. 자연히 재정 상태는 악화되었고 건물임대료 등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상황까지 되었다. 청소년과 대학생도 머지않아 어른이 되듯이 세대가 수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음세대, 그 다음세대의 청년들도 퇴폐와 향락의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존재하는 “홀리갤러리”라는 공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꿈과 용기를 얻고 교과를 초월해 교류하고 음익을 통해 신앙을 키우며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청소년들의 모임 holykids에서는 찾감을 인상하고 특별헌금을 해사라도 카페가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3백여 교회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되려하는 동안 홀리갤러리의 존재가 쓸쓸하게 사라지고 만다면 청년 기독교문화의 암흑기가 시작될 수도 과언이 아니다.

※홀리갤러리 증요로 1가 74번지
☎254-4529

생시화를 위해 후원하신 분들

【연제나 변함없는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후원하시는 교회와 기독교인사들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묵묵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성령으로 움직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 〈개원〉 감성수 평영선 김철수 김기태 김기현 김명영 김현철 김원호 민병현 평영동 박동현 박성모 박성민 안민재 안광수 열림남 오홍수 이순훈 이병원 이준택 이학규 임은경 황순옥 유정남 한희철 한순수 허순영 홍성훈 홍순복 황병남 장기경 정만복 조남진 조충환 최경복 최상호 최지강
- 〈교회〉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목사) / 춘천중앙교회(사공정목사) / 춘천석사감리교회(임택목사) / 춘천중앙교회(관오목사) / 춘천중앙교회(이원호목사) / 춘천평화교회(한관목사) / 춘천동부교회(임신영목사) / 춘천연리교회(신성관목사) / 춘천신앙성경교회(최상도목사) / 춘천늘사랑교회(정병호목사) / 춘천일신장로교회(이은주목사) / 순복음하나교회(김길목사) / 석사순복음교회(김재명목사) / 서부감리교회(곽영준목사)
- 〈단체〉 이슬탄테러리인교회(최주라원장, 순복음하나교회) / 이윤구(영광한의원) / 조은혜/기정희(베드로방병원) / 이관호/윤영선(알로에아임) / 윤기현(이대) / 김기철(가톨릭관동대) / 강원도청직장신교회
- 〈특별후원〉 중앙교회(성시화목사(안민원, 이현숙 외)) / 이영일(석사감리교회) / 최계천(주요비전센터) / JDM에세이(주요비전센터) / 윤재목(목사)
- 〈후원계좌〉
계좌 711-04-123620(예금주:조충환)

대한에수교장로회
춘천제일교회

담임목사 박상호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46-5 / TEL:033241-4361-5 FAX: 241-4364
교회 홈페이지 http://www.chjeil.co.kr

대한에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담임목사 임성영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37 / 교회사무실: TEL:033252-5969
교회 홈페이지 http://www.chdongbu.co.kr

춘천열린교회

담임목사 신성관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426-8 / 교회사무실: TEL:033253-7227

대한에수교장로회
늘사랑교회

담임목사 정재호

춘천시 후평동 67-11번지 / 교회사무실 TEL:252-5219
늘사랑교회 홈페이지 http://www.zestloving.org/

기독교대한교회
춘천석사교회

담임목사 임백상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60-1 / 교회사무실: TEL:033261-6823

기독교대한교회
춘천소양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강원도 춘천시 요산동 114 / 교회사무실 TEL:033253-2004
교회 홈페이지 http://www.soyang.church/

기독교대한교회
사마교회

담임목사 최상도

강원도 춘천시 사마동 1174번지 / 교회사무실 TEL:261-7727
사마동교회 홈페이지 http://www.seam2.com/

기독교대한교회
춘천광명교회

담임목사 박민관

춘천시 석사동 728-8번지 / 교회사무실 TEL:263-5007
팩스: 263-5004 교회 홈페이지 http://www.cdcs.or.kr

기독교대한교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권오시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02 / 교회사무실: TEL:033259-3000
교회 홈페이지 http://www.chmchurch.org/

기독교대한교회
평화교회

담임목사 한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정화리 791-1후평동 지내버스 정류장
TEL:교회사무실 241-5621 FAX: 241-5622 / 목사관 255-8325

기독교대한교회
석사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계명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45-7 / 교회사무실 TEL:033261-6041

기독교대한교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유동선

강원도 춘천시 평동동 96-7 / 교회사무실 TEL:033256-3537
교회 홈페이지 http://www.cccch.co.kr

기독교대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 김주환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현로 595-1 / 교회사무실 TEL:033253-2741

대한에수교장로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사공정

춘천시 퇴계동 669-2번지 퇴계동 동사무소 옆
교회사무실 ☎ 257-2001 FAX:257-2002 / 목사관 251-2002

기독교대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담임목사 김길용

춘천시 후평동 711-25번지 세원3APT 맞은편 건물 3F
TEL:033254-9599 / H.P.011-369-5098

대한에수교장로회
일신교회

담임목사 이은주

강원도 춘천시 근교동 713-5번지 교회사무실 ☎ 033257-7141

Mission Perspectives(MP)

전략적 관점 (12과 · 13과 · 14과)

우리는

지금까지 탐구해 온 선교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들이 주로 복음의 내용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12과부터는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수단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들을 공부하게 된다. 8과에서 윌리엄 캐리가 주장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 사용해야 할 수단에 대한 탐구의 심층적인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캐리가 근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의 선교의 방법과 개념들의 정의를 이미 그가 정의하였고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12과 기독교적 지역 사회 개발)에서는 선교의 전략적인 방법의 하나로 우리에게 직면하는 문제로 세계의 빈곤과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독교가 민감해야 하며 선교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취하면서 선교사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가령, 동정심으로 빈곤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의 진정한 필요인 영적 필요에 대해서 선

한 토착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 생길 가능성은 많은 생물이 살아남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생물은 가능한 교회는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배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선교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역사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았다. 하나님의 선교가 지역적 나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종족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아직도 복음을 한민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앞에서 말한 생물은 가능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교회가 아닌 그들의 교회로서 토착교회를 세워야 한다. 진정한 토착교회가 될 때 선교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교회로서 배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가 종족중심을 일으킨다. 즉 같은 문화와 혈통관계를 지닌 종족들이 그들의 정체성 및 종족내에서의 관계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집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물결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선교지에서 이른

게 우선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운동이 어느 한 종족 집단과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최전방 선교를 통해 개척되고 자라나는 교회들이 철저하게 다른 문화적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맥가브란은 이런 의미에서 선교사는 선교지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다. 즉 한국 선교사가 한국교회를 선교지에 세울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7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1)성경하는 교회들을 집단으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라. 2)하나님의 종족집단에 집중하라. 3)희생자들이 그들의 동족들과 함께 남아있도록 권면하라. 4)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을 집단으로 내리도록 격려하라. 5)새로운 회심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6)회심자들이 최고의 소망들을 구원하는 좋은 예가 되도록 두라. 7)형제애를 강조하라. 모든 종족 안에 하나의



최영조 목사
MP담당자(이재)
(한국리더십센터)

집사와 전도

(성경 행6:1-6) ①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로 흐르므로 사람을 임명하여 ②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③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④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⑤은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온과 바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다수 세우니 니콜라를 막하여 ⑥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집사의 기원》

집사의 기원은 초대교회에 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도와 교회의 업무를 맡아 주어 담당하도록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사 직분을 세우도록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집사로 부르기도 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을 도와 교회의 목회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집사들을 가지게 되었다.

《집사의 자격》

집사의 직분은 철저히 봉사자로서의 직분이며 사역자로서의 직분이기 때문에 중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담당할 수 없는 직분이다. ①절차자들은 사립(행6:3) ②성령충만한 사람(행6:3) ③예수충만한 사람(행6:3) ④믿음 충만한 사람(행6:5) ⑤단정하고 일구어인(일구어인(一구어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연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利)를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딤후3:8) ⑥계속한 담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딤후3:9)로써, 집사의 사명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것 이외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집사는 마땅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고 집사는 세상에 대해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하며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중생한(거듭난)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영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선출해야 한다.

《집사의 사명》

(딤후3:13) “집사의 직분을 할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에 큰 담력을 얻으리라”고 했듯이 모든 집사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가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 영혼구원의 사역에 힘써야 할 것이다.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였다. 그는 예루살렘교회의 집사로 서 사도들을 도와 교회의 사역을 성취했다. 스데반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고 복음전리를 위해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본받아 이 시대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증거 대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행8:5-6) “빌립” 집사는 전도지도자였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 “빌립” 집사는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즉시 순종하였다. 그럴 때 그는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날 수 있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빌립” 집사처럼 모든 집사들은 복음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항상하고 있어야 한다. 성경말씀을 잘 해석하여 진리를 제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전도가 아닐 수 없다. (행21:8-9) 전도자 빌립 집사는 또한 복음 전도적 가정을 이룬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의 자녀들도 모두 예언을 하는 일꾼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말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빌립”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복음전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집사들은 여행할 기회에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라.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로 여행 시에, 집사는 그 여행의 이유가 복음증거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도(목회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도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모든 집사들을 훈련으로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질질된다.

※이영구 집사(호헌기독교장로회연합회 총회장/김포교 남신교회동무회 총무)



사진은 교회와 해외선교단체들의 선교전략을 공유하기 실시한 호헌선교대회의 해외선교단체 무스와 지도자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각 해외선교단체 대표들의 모습이다.



교사가 민감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하나의 자선사업으로 전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세계의 빈곤과 그들의 필요를 찾아 오늘날의 NGO 단체를 통해 도움을 주며 나아가고 싶어 하느냐의 영향을 위한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1과에서 다룬 선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필요를 찾아 선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교방법을 이 책에서는 기독교적 지역 사회 개발이라고 말한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각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퇴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선교지의 필요를 외면한 선교사는 더 이상 선교지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궁핍한 세상의 필요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셨다” - 굶주림의 문제, “복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 식수와 음수의 문제, “나그네 되었을 때에 접접하였고” - 빈민 문제,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 재민의 문제, “병들었을 때에 돌이보았고” - 질병의 문제, “죽어 간헐을 때에 외쳐 보았느니라” - 핍박의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선교사는 이러한 상황속에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선교사가 변혁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고 그들의 문화에 하나님 나라를 배가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배교동체의 형성이 되게 될 것이다. (13과 교회의 자질적 배가)에서는 어떻게 모든 종족 가운데 생길 가능

바 배가되는 전도가 이루어져 종족은 물론 가족과도 분리시켜 개종자에게 집단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웠다. 종족중심을 통해 각각의 종족 가운데 토착교회를 세워왔으며 이제 그들은 스스로 성장하며 배가할 수 있도록 선교사가 도와야 한다. 우선적으로 내적으로 성숙하여 내적인 힘을 가지도록 돕고, 인권의 이웃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확장하게 하며, 스스로 배가하여 팔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하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문화를 넘어 전도와 교회개척을 시도하여 다른 문화와 다른 종족에게 다리 놓기를 시도하는 데 까지 성장하도록 돕는다. 자발적으로 배가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교사는 제자삼는 종족을 사역해야 한다. 또한 선교사가 제자로 삼은 자들이 즉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삼는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순종을 실천해야 한다. 교회들을 계승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교회들 사이에 사랑스럽고 발전적인 책임감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진정한 생물은 능한 토착교회는 자치, 자립, 자전하는 교회이다. (제14과 최전방 선교 개척)에서 최전방의 배가한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아직 10,000개의 종족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므로 더욱더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전략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미 교회가 있는 곳보다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맥가브란은 하나님과 회심성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절대로 회심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언급한 시대였던 15명의 예루살렘교회의 결정은 복음을 더 이상 율법에 가두지 않는 좋은 본보기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무슬림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어느 한 가지 상황화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과연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슬림 옷을 입은 기독교 신앙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화의 문제에서 혼란을 겪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종족내에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상황화할 때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1)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다. 2)다른 신이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다. 3)성경을 연구하라. 4)신비주의를 버리고 거기서 해방하라. 5)종교적 관습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생하는 것이 아니라. 6)종교적 신념들을 성경에 비추어 검토하라. 7)종교했다는 것과 문제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를 보이라. 복음의 최전방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더우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개교회보다 앞서 길을 닦아 놓은 많은 전문예배선교단체들이 있다. 교회들은 이런 전문 선교단체들과 협력해서 그들의 교회를 공동체로 좀더 전략적인 선교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다음호에서는 15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홍천군 신우회 등반대회·정오기도회

홍천군 신우회(회장 이상준장로)에서는 지난 10월 25일(토) 낮 2시 홍천군 동면 공작사에서 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직장 신우회원들은 가족동반으로 40여명 참여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직교의 복음화를 위한 믿음을 격려하고 친교하며 등산은 마쳤다. 이날 농승철 홍천군수님과 김석기

부군수님의 격려가 있어 더욱 뜻있는 행사로 감사의 하루를 보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낮 12시 은평교회에서 홍천서부교회 신교회 목사님으로 초청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란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마련하여 직장 복음화와 초교파적 교회일치를 위한 합심화를 드리고 예찬을 함께 나누었다.

난과 신앙

난과 식물들은 전세계적으로 약 2만5천여 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상의 꽃피는 식물 종류의 약 7%를 차지할 정도로 난초의 종류는 다양하여 외떡잎식물 즉 단자엽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식물로 알려져 있고 난의 종류마다 꽃과 잎, 줄기의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특징이 서로 다르다. 또한 북극과 남극을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어디에나 분포되어 자라고 있지만 원예적 측면에서 관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종류들은 연간 강수량이 1,500~2,000mm 정도 되는 데서 몇몇의 열대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난의 잎새는 유연하고 아름다워 모자지 않는 성품에 비유하고 완만하면서도 곧게 뻗은 사시사철 푸른 잎은 곳곳간 기쁨을 나타내고 난초는 소박한 듯 화사하고 그 향기가 은은하면서도 그윽하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난을 길 배양할 수 있을까? 하는 설교의 대상으로 삼아왔고 시와 그림의 좋은 소재로 여겨 사랑해 왔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어느 하나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 아닌 일 있었습니까? 참으로 많은 생물과 경제적 난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난을 길 배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의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취미생활에 빠져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생활한다면 내

가 하는 취미가 어떤것인지는 이것은 우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수십년 지나서야 조금은 깨달을 수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난초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하나의 풀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요한복음 21장 15~17절)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 어느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지니는 새끼들 동인은 예수님 질문에 부끄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은 삶은 내기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려 봅니다. 선블러 꽃을 피우려다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다는 사실을 그러면서도 저들은 새로운 생명을 기구지 위하여 능히 자신을 바칠 준비가되어 있고 생명을 바칠지 않는 편, 아! 그저 꽃이나 피우고 향기나 즐기면 족하다 싶었지 않았는 저 난. 본분의 속 깊은 심지를 알지 못했던 저는 어리고 작은 난 앞에서 초조 고개 돌리기 부끄럽습니다.

박두한 집사
한림교회
(사)대한민국서정원
집사 강원도지부장



나는 별이지
별이면서 꽃 꽃이면서 별이
하늘 총총 별이내린 땅의 별이지
없는 듯 땀은 향기
은 누리를 선택하고
천년을 피고 지며
겨레 마음 적었으니
금빛 그 빛의 햇살
서늘어온 밤의 달빛

넋을 안에 달기다
출렁이는 황토
고와라. 꽃들의 꽃
너무 정한 너의 열매
어둠들이 없는
마니법은 성화월월
땅에 내리니
난이여, 거룩하게 영원하라
천년만년 이방에 피고 지거라

